

## '23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 1. 회의 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10.18.	회의실	11/13	4	1	16	○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필오·곽선희·김안나·김영신·송경용·오광호·오동식·이상길·이숙희·임동훈·조경완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 이승철(콘텐츠본부장), 이계상(시사보도본부장), 정석훈(경영심의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차장)

###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10	0	1	2	13	0	13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3	0	0	13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시사용광로>, 진행자와 출연자 간 서로 의견을 묻고 원만한 진행을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 필요	시사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10.27)	'23.10.
"	<시사용광로> 토론자를 지정할 때 신구 정치인의 조화 부족 아쉬움	시사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10.27)	"
"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계속 관심을 바람	<뉴스데스크> 세계 곳곳서 '김치의 날' 제정(10.27), 미국 식탁에도 '남도 한류'(10.26), 특집토론 <김치 안녕한가?> 1, 2부(10.29, 11.5), <2023 대한민국 김장대전> 생방송(11.22) 및 외신기자 간담회(11.9) 개최 등 방송 조치	"
"	지역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일자리 해법 제시 프로그램 기대	<뉴스데스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10.28), 기억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바라본 이아포 사건(10.21), <5시 뉴스> "광주노사민정 '광주광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해야"(11.2), <시사인터뷰 오늘> 2023년 광주창업페스티벌(10.20), 2023 북구 청년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아카데미(11.10) 등 방송 조치	"
"	'푸드테크 광주'를 선언함. 우리 지역 식품, 먹거리 발전에 관심 바람	<뉴스투데이> '2023 광주식품대전' 개막(10.12), <뉴스데스크> 미국 식탁에도 '남도 한류'(10.26), 서울광장 김치대전 인기(10.24), 남도 김치의 미래 토론(10.27), 특집토론 <김치 안녕한가?> 1, 2부(10.29,	"

		11.5)	
"	다양한 분야의 명인, 명장들의 삶과 철학을 소개해 주길 바람	특집토론 <김치 안녕한가?> 2부 김치 명인 출연(11.5), <본방을 보자> 맛의 고장, 광주에서 탄생한 대한민국 명장(10.26) 등 방송 조치	"
"	포트 홀은 도로 파임, 스크린도어는 안전문 등 방송언어 우리말 사용 바람	시사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10.27)	"
"	정율성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속적 인 추적 보도 및 역사적 인물을 찾고 재조명하는 프로그램 기대	<뉴스데스크> 자주독립 뜻 이어받자(11.3), <5시 뉴스> 정율성 흉상 훼손한 보수단체 회원..검찰로 넘겨져(11.1),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철 폐하라” 촉구(10.25) 등 방송 조치	"
"	한빛 원전 수명연장 논란 관련해 중고 발전소 우려와 안전 관심 필요	<5시 뉴스>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중단하라”(10.26), 한빛원전 수명연장에만 급급?(10.19) 등 방송 조치	"
" (시청자 불만)	10월 16일 8시 광주 뉴스 보도 중 ‘내부는 방치된 토사물이 가득하다’라고 함. 우리말의 정확한 뜻과 정확한 발음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함	시사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10.27) 및 자막, 기사 등 점검 철저 조치	"
연예·오락 (스포츠)	무등산권지오마라톤대회 방송 시 중간에 식당 소개 뜬금없었으며, 시청에 방해되었음	편성책임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10.27)	"
기타	한글 사명 표기 지속 바람	텔레비전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자체 편성 시 한글 사명 표기 시행 중	"
"	광주MBC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글 사명 자막 활용 바람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한글 사명 표기 시행 조치	"
총 건수		13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시사용광로>, 진행자와 출연자 간 서로 의견을 묻고 원만한 진행을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 필요(강필오)	<시사용광로> 진행자가 당일 생방송 출연자와 토론 아이টে에 대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방송 시작 전에 사전 협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	○		
"	<시사용광로> 토론자를 지정할 때 신규 정치인의 조화 부족 아쉬움(임동훈)	청년 정치인들이 토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하겠음	○		
"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계속 관심을 바람(곽선희)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보도하겠음	○		
"	지역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일자리 해법 제시 프로그램 기대	다양한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보도하겠음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대(강필오)				
"	‘푸드테크 광주’를 선언함. 우리 지역 식품, 먹거리 발전에 관심 바람(송경용)	광주를 알릴 아이템을 발굴해 뉴스에 반영하겠음	○		
"	다양한 분야의 명인, 명장들의 삶과 철학을 소개해 주길 바람(오동식)	명인 명장들을 소개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겠음	○		
"	포트 홀은 도로 파임, 스크린도어는 안전문 등 방송언어 우리말 사용 바람(오동식, 김안나)	방송언어를 우리말로 순화해 기사나 자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		
"	정율성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보도 및 역사적 인물을 찾고 재조명하는 프로그램 기대(심상돈)	정율성 사업을 둘러싼 이념논쟁에 대해 지속적인 보도를 할 예정임	○		
"	한빛 원전 수명연장 논란 관련해 중고 발전소 우려와 안전 관심 필요(이숙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비판 감시는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음	○		
"	10월 16일 8시 광주 뉴스 보도 중 ‘내부는 방치된 토사물이 가득하다’라고 함. 우리말의 정확한 뜻과 정확한 발음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함(시청자 불만)	방송에서 정확한 우리말 사용을 위해 기사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우리말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겠음	○		
연예·오락 (스포츠)	무등산권지오마라톤대회 방송시 중간에 식당 소개 뜯금없었으며, 시청에 방해되었음(이상길)	향후 제작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겠음	○		
기타	한글 사명 표기 지속 바람(오광호)	한글 사명 표기를 계속해서 시행하겠음	○		
"	광주MBC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글 사명 자막 활용 바람(김영신)	자체 제작 프로그램은 한글 사명을 표기하겠음	○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3년 10월)

일 시	2023. 10. 18. 수. 오후 5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장	강필오, 곽선희, 김안나, 김영신, 송경용, 오광호, 오동식, 이상길, 이숙희, 임동훈, 조경완(11명)	
	회사	김낙곤 사장,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 정석훈 경영심의팀장, (4명)	

### ■ 회의 내용

- 조경완 위원장 : -위원장님 좋은 계절에 뵙게 돼 반갑다. 9, 10월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일도 듣고 앞으로 계획도 들어보면 좋겠다. 먼저 사장님 인사 말씀부터 듣겠다.
- 김낙곤 사장 : -10월이 가장 바쁜 달이다. 창사 59주년 기념식을 간략하게 했고, 내년 60주년을 준비해야 한다. 무등산권지오마라톤대회가 잘 끝났고 다음 달에는 김치대전을 준비하고 있다.
- 조경완 위원장 : -김치대전에 관해 설명해 달라.
- 김낙곤 사장 : -11월 22일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김치의 날이다. 엘에이나, 런던, 뉴욕도 김치의 날로 정했다. 김치가 주류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취재하기도 했다. 김장이라는 문화를 5.18 광장에서 펼치고 지상파와 유튜브로 중계한다. 5.18의 아픈 현장에서 김장을 통해 기부까지 한다. 내일은 외신기자를 만나러 간다. 이 장면들이 전 세계에 타전돼 김치 선도도시 광주를 알리고자 한다.
-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 -<문화콘서트 난장> 동구 버스킹을 제작했다. 전국 MBC 공동기획 <우리는 지역에 살아요> 하림의 광주 버스킹 편을 제작해 전국에 송출했다. 한글날 주간 특별 기획 연속 편성으로 <시대의 품격 한창기> 10월 9일, <뿌리깊은 나무> 1부 10월 10일, <뿌리깊은 나무> 2부 10월 11일에 방송했다. 한글 서체 광주문화방송 사명을 화면 우상단에 송출하고 있으며, 9월 20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댄서 윤전일 공연을 녹화해 편성했고, 10월 15일 무등산권지오마라톤대회를 TV와 유튜브로 중계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UHD 특집 다큐멘터리 <세계 속의 마한>을 10월 20일에 방송하며, 10월 20일 김정호 가요제, 10월 20일 굿모닝 양림 녹음 및 유튜브 중계, 11월 22일 대한민국 김치대전 TV, 유튜브 생방송이 예정돼 있다. 11월 19일, 11월 26일 RAPA <한민족의 소리> 1, 2 라운드 광주 편성도 준비 중이다.
-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 : -광주MBC 뉴스 채널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 광주MBC 뉴스 채널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10만 명 구독자 달성이다. 뉴스 쇼츠와 라이브 방송, 뉴스텐바이 등이 다각적으로 기여했으며, 서울MBC 뉴스 채널 성공 사례 참고해 기자 에디터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민심 탐방 기사를 방송했는데, 선거구별 입지자 구도와 후보를 소개했다. 내년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 소개나 우리 동네 인물 사전 연속보도, 뉴스를 통해 광주 동남갑 등 13개 선거구 구도 분석과 공약 소개, 유튜브 채널에 후보들의 인터뷰를 게재하고 유권자 관심을 유도했다. LA 한인축제 50주년 현지 취재 후 보도했는데, 한인축제 상황을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집중 조명했고, 미국 각 가정 식탁에 오른 K-푸드, 특히 K-김치의 위상을 보도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창사 59주년 특별 기획 'K푸드, 김치의 가능성은?'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지역 정가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 강필오 위원 : -<뉴스데스크> 10월 내용 중 광주미디어아트 축제 개막, 미국 식탁 사로잡은 K-김치, 세계 최대 LA한인축제 진출한 'K-남도음식', 4년 만에 달리는 무등산권지오마라톤대회 흥행 등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대한 좋은 소식과 우리의 음식이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유익했고 기분까지 좋았다.

-<본방을 보자>에서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챙기는 뉴스 본방, 다시 보고 싶은 참가자로 꾸며준 줌 인노래방, 가을을 맞이하여 개최되고 있는 다양한 축제 중 제10회 디자인비엔날레 소식, 오픈 채팅방에서의 소통 순서로 진행되었다. 유쾌한 리포터의 진행도 좋았고 다양한 소식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시사용광로>에서 <총선 D-6개월 정치 상황과 총선 전망>이라는 주제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출연하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말해주는 민심, 정치권에 미칠 영향, 내년 총선 전망의 주제로 방송되었다. 토론의 내용을 따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회자의 진행과 참가한 패널들의 자질로 내용이 진행되니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생방송이다 보니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진 않겠지만 서로의 의견을 미리 묻고 사회자는 어떻게 원만히 진행해야 할지를 사전에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토론이 서로의 의견과 입장을 얘기하며, 맞고 틀리고를 따지지 않는 품격 있는 토론이었기에 의견 드린다.

-<우리는 지역에 살아요>에서는 금산에서 지역 살이를 꿈꾸는 청년들 이야기를 시청했다. 금산 들락날락협동조합을 꾸려가는 청년들의 이야기이며 책방, 게스트하우스 등 운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시골을 만들어 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지역의 다양한 활동들을 꾸준히 방송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는 요즘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일자리에 관한 해법을 제시해 주는 방송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린다.

- 광선희 부위원장 : -<시사용광로> 정치 상황과 총선 전망 편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통해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 분석을 흥미롭게 시청하였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고 이념보다는 민생행보를 바라는 구민의 바람이 표로 나타난 듯하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처럼 같은 당의 잘못된 점 직시하고 반성하는 정치인 모습에 호감이 갔다. 민주당은 비명, 천명 갈등하는 모습보다는 이번 구청장 선거 결과를 통해 강한 민주당의 모습들 보여줘야 하며 국민이 실망하게 하지 않고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으면 한다. 민주주의는 책임정치라는데 두 당은 서로 책임 전가하며 싸우는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한 일에 합치하며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 보여줘야 한다.

-<레드디쉬> 1부 Discovery 어떤 발견 편에서는 산과 바다와 도시들과 서로 연결되어있고 한국을 통해 세계를 넘어서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혼의 음식인 김치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고춧가루를 넣지 않는 특색 있는 김치, 즉 맨드라미를 이용한 가지김치 등 전혀 몰랐던 김치의 세계를 알 수 있었다. 김치에 대한 애정과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되었다. 내가 알고 있는 김치는 코끼리 다리만 보고 코끼리 전체인양 단정하는 편견된 사고를 했음을 반성하게 되었다. 2부 Expedition 실험자의 탐험 편에서는 오이지, 경북 영양 종가의 평을 넣어 볶은 평김치 등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완성되어 가는 김치의 끝없는 세계를 알게 됐다. 묵은김치를 가끔 버렸는데 미생물의 세계를 보면서 김치를 다양하게 연구하며 시행할 필요 느껴졌다. 3부 Variation 변주의 세계에서는 절임배추의 다양한 형태, 북한의 백김치, 냉면 육수 맛의 감칠맛은 동치미 맛이 좌우한다고 했다. 많은 재료가 필요 없는 다양한 발효음식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로웠다. 4부 오래된 미래에서는 김치의 맛을 내는 미생물의 종균 발효가 증가하면서 유산균을 만들어 가는 김치를 소개했다. 시간, 속도 음식의 양에 따라 맛을 내는 김치가 세계 속으로 나갈 수 있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미래 지향적 음식인 김치는 높은 가치를 지니고 무한한 가치를 추구하며 세계 속으로 나아갈 것이다.

- 김안나 위원 : -광주문화방송의 '우리말 으뜸 지킴이' 수상을 축하한다. 우리말을 아끼고 방송언어를 바르게

쓰는 노력을 계속해주길 바란다. 지난 6월에 치러진 제1회 영산강 그란폰도 성공개최 방송을 보면서 그란폰도가 뭐지 궁금했다. 한글 표기도 함께 해 줬으면 좋았겠다. 2023년 연중 기획 영상을 보면 올 한해 광주문화방송이 시청자와 약속한 기획을 알차게 만들어 가는 것 같다. 2024년 연중 기획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꾸며졌는지 궁금하다.

- 김영신 위원 : -광주MBC 뉴스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그동안 최신 뉴스를 신속하게 업로드 하고,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하여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며, 각종 시사 프로그램의 주요 부분을 흥미롭게 편집하여 업로드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에 더하여 TV 채널 광주MBC 뉴스에서는 ‘광주문화방송’이라는 한글 자막이 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다. 광주MBC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글 자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
- 송경용 위원 : -10월 8일 뉴스에서 광주FC가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강원FC와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이기며, 15승 9무 9패를 기록해, 정규라운드를 3위로 마무리했다고 소개했다. 광주는 후반 4분 두현석의 크로스를 받은 김한길이가 헤더로 연결해 골을 넣었다. 이번 결과로 광주는 창단 이래 처음 전 구단을 상대로 승리했고, 이는 올 시즌 K리그1 12팀 중에 유일하다. 광주FC가 2부리그에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1부리그로 승격하여 3등이라는 기록을 남긴 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뉴스에 나온 것처럼 전용 경기장에서도 훈련을 마음대로 못 하는 상황이었어서, 복도에서 훈련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았다. 3등이라는 순위를 기록해준 선수들과 감독, 코칭 스태프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광주시에서 광주FC에 관해 관심과 지원을 더 가져 다른 구단처럼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좋은 기록을 내면 좋겠다. 광주에도 축구의 봄이 오는 날을 기대한다. 10월 12일 뉴스에서는 호남권 최대 식품박람회인 “2023 광주식품대전”이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소개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광주식품대전’에는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과 해외 바이어 등 300여 개의 업체들이 참여했다. 광주 명품 김치관, 전통주 특별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광주시는 이번 식품대전을 통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기술로 식품산업을 육성해 ‘푸드테크 광주’를 선언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예정이다.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더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푸드테크 광주라는 단어에 알맞게 우리 지역의 식품이나 먹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바란다.
- 심상돈 위원 : -광주MBC 다큐플러스 <시대의 품격 한창기>는 한글날 아침에 잘 어울리는 편성이었다. 우측 상단 훈민정음체의 ‘광주문화방송’ 로고가 아주 돋보였다. 『뿌리깊은나무』 잡지를 설명할 때 김명곤 진행자 뒤 배경의 빈 와인병이 조금은 어울리지 않고 거슬렸다. 우리말 한글의 새롭고 아름다운 서체를 찾고 개발했던 인물에 대한 재조명, 출판문화의 자존심이자 잡지계의 혁명가로 불리운 인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기회였다.  
-<시사인터뷰 오늘>에서 정율성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방송했다. 정율성 홍상의 불법적인 훼손을 수수 방관하며 이미 시행하기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현 정권의 이념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 시대에 어울리지도 않는 ‘공산당 프레임’으로 사업 진행을 중지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화순 능주초등학교의 홍상 철거 등 국가보훈부의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상태로 사업 진행을 중지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이다. 시대에 따른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념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정율성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보도가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정율성 공원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본받을 만한 인물을 찾고 재조명하는 다각도의 편성과 보도를 기대해 본다.
- 오광호 위원 : -<광주MBC보다>에서 9월 7일 개막한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해줘서 광주시민들에게 큰 홍보가 될 것 같다. 4개 전시관인 Technology, Lifestyle, Culture, Business의 주제와 대표 작품들을 보여줘서 좋았다. 전시관 외에도 메타버스 미니게임을 통해 20여 개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여러 작품을 보여줘서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광주인쇄비즈니스



스센터, 양림동 등 광주 내의 다양한 명소에서 즐길 수 있는 전시 작품을 소개하면서 각 명소의 위치를 알려줘서 좋았다.

-<본방을 보자>에서 항저우아시안게임 활약한 광주 출신 선수단을 소개해줬다. 근대 5종 전용태 선수, 양궁 안산 선수, 최미선 선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등이 활약하여 금메달 6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고 한다. 광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제577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리대로 대표를 초청하였다. 매년 우리말 지킴이 선정을 하는데 올해는 광주MBC가 상을 받았다. 텔레비전 오른쪽 상단에 영어 채널명 대신 ‘광주문화방송’을 표기하거나 방송 자막에 지역 말 사용하는 등 방송에서 우리말 쓰기에 앞장서는 등 ‘우리말 으뜸 지킴이’ 상을 받은 내용을 안내하며, 일상생활 속의 우리말 사용의 중요성을 설명해 줘서 좋았다. 리대로 대표는 ‘우리말과 글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을 가지고 매년 우리말 지킴이를 선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글날을 맞이하여 우리말 사용의 필요성을 시청자에게 잘 인식시킨 것 같다. 우리말을 바르게 써야한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다. 앞으로도 한글 사명 표기 등 우리말 사용에 적극 나서주길 바라며 바른 방송말 사용을 위해 노력을 바란다.

- 오동식 위원 : -10월 5일 <광주MBC 뉴스데스크>에서 “한글 사명 사용 ‘용기 있는 일’” 뉴스를 시청했다. 1년 전부터 광주MBC 대신 광주문화방송이라는 한글 사명을 사용하며, 각종 보도와 프로그램에서 한글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높이 평가되어 우리말겨레지킴이모임으로부터 우리말 으뜸 지킴이상을 받은 내용이다. 시청자 입장에서 크게 환영하고, 지역 언론들의 귀감이 될 만한 소식이다. 하지만 일부 뉴스 제목의 외국어 표기는 우리말로 순화해서 내보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9월 27일 “정치적 리더십 회복한 이재명, 지역민 반응은?”이라는 뉴스 제목에서 리더십을 지도력으로, 9월 26일 “‘수사 무마 청탁’ 브로커들 혐의 일부 부인” 뉴스에서 브로커들을 중개인들로, 이외에도 디폴트는 채무불이행, 모라토리엄은 지급유예, 퍼펙트 스톰은 초대형 경제 위기, 포트 홀은 도로 파임 또는 노면 홈, 스크린도어는 안전문, 가스라이팅은 심리지배, 가이드라인은 지침 등으로 변경해 각종 보도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10월 9일 <광주MBC 보다>에서는 김인숙 명인의 철학과 삶이 담긴 흥갓 꽃물 갓물김치를 소개했다. 2020년 광주세계김치축제 대통령상 수상자인 김인숙 명인의 건강하고 맛깔난 김치 만드는 과정이 인상 깊게 남았다. 기본에 충실한 김치,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김치, 자연에 가까운 김치가 건강한 김치라는 김인숙 명인의 철학은 이 시대 성공한 많은 분의 경영 철학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광주와 전남 명인, 명장들의 삶과 철학을 소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상길 위원 : -<본방을 보자>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달리자! 제2회 무등산권지오마라톤대회’를 소개했다. 광주MBC가 주최한 무등산권지오마라톤대회 코스에 대해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명소를 포함하여 코스를 설계한 것을 잘 설명했다.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 화순에서 출발하여 담양을 거쳐 다시 화순으로 돌아오는 코스에서 지질학적 명소를 소개하고 이 장소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명소가 되었는지, 어떠한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지,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학계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관광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등에 관해 설명이 잘 되었다. 가족, 지인들과 함께 방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개가 잘 되어 유익한 방송이었다고 생각되었다. 다만, 코스 중간에 갑자기 식당을 소개하며 소위 말하는 리포터의 ‘먹방’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분량도 총 11분 중에 3~4분을 편성한 것은 방송에 몰입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 이숙희 위원 : -한빛 원전 수명연장 논란 관련 의견이다. 정부는 2036년까지 한빛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안이다. 환경 단체는 정부에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하며 작성된 환경영향 평가서의 경우에도 각종 전문용어의 산재로 인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수명연장 찬성에서는 대한민국은 1978년도의 원전 도입 이후 총 30여 기의 원전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24기가 가동 중인데, 그만큼 원자력발전을 통한 값싼 전기요금과 고품질의 전력 에너지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기존 원자력발전의 수명연장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탈원

전 정책의 선두 주자였던 독일 역시 원자력발전의 수명연장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원자력발전의 수명연장은 늘어가는 전력수요를 충족과 더불어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크다는 측면이 있다. 수명연장 반대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발생하는 원자력의 폐기물 처리방안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연 혹은 인위적 재해에 대한 원자력발전의 안전을 보장 못 하며 이는 경제적 개념의 접근이 아닌 인류 안전의 시야로 이를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결론적으로 중고 발전소를 사용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와 안전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요구하는 것도 과도한 처사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런 우려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전력산업의 경우 언제부터인가 너무 당연하게 있는 기반 시설화되었다. 인류는 과거 불의 발견 이후 에너지를 떠나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 인류역사상 발견, 발명되었던 모든 에너지원의 특징을 잘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즉 전력 사용에 하이브리드형 마인드가 매우 절실하다.

- 임동훈 위원 : -<시사용광로>는 지역사회뿐 아니라 국가적인 현 이슈를 적절히 잘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주제 선정, 진행 및 토론 내용 등 전반적으로 훌륭하게 진행되어왔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다뤄진 주제 또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강서구청장 선거를 분석하고 향후 총선에 대한 전망과 우리 지역 정치를 되짚는 시간이었다. 두 토론자의 수준 높은 토론과 진행자의 수준이 돋보였다. 대표적인 신세대 정치인인 천하람 위원장과 원로 정치인인 박지원 원장이 서로 반대의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하니 전체적인 짜임새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토론자를 지정할 때 신구 정치인의 조화를 맞춰서 네 명 정도 출연하였더라면 조금 더 흥미를 유발하는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 조경완 위원장 : -10월 16일 뉴스 보도 중 토사물로 잘못 표현한 것을 지적한 시청자 불만이 있다. 토사와 토사물을 혼돈해 쓴 것이다. 시청자분께서 토사와 토사물의 차이를 예로 들며 주체적으로 지적했다. 이외에도 우리말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 텐데 방송에서는 더욱 유의가 필요하겠다.
-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 : -시청자의 불만 내용에 관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확인했다. 보도 시 기자의 말은 물론 자막 등 더욱 세세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조경완 위원장 : -이상으로 10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끝.